

NEAR사무국, 제13차 실무위원회 협의차 한국 울산광역시 방문 관련 보도자료 스크랩
2022.02.22.(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울산매일신문	울산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관련 현안 논의	
2	신문	울산제일일보	울산시-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9월 개최 '13차 실무위원회' 준비사항 공유	
3	인터넷	CNB뉴스	울산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올, 주요업무 청취	
4	인터넷	더코리아	울산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2022년 주요업무 청취	
5	인터넷	뉴시스	울산시-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13차 실무위 논의	
6	인터넷	아시아경제	울산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2022년 주요업무 논의	
7	인터넷	부울경뉴스	울산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2022년 주요업무 청취	
8	인터넷	경남에나뉴스	울산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2022년 주요업무 청취	
9	인터넷	미디어투데이	울산광역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2022년 주요업무 청취	
10	인터넷	데일리연합	울산광역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2022년 주요업무 청취	
11	인터넷	케이에스피뉴스	울산광역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2022년 주요업무 청취	
12	인터넷	뉴스쉐어	울산광역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2022년 주요업무 청취	
13	통신사	서울뉴스통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22년 주요업무 청취	

울산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관련 현안 논의

6개국 79개 회원단체 국장급 간부 참석

조혜정

승인 2022.02.22 22:30



▲ 김옥채 NEAR(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 일행이 22일 울산시청을 방문해 송철호 시장과 오는 9월 울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13차 실무위원회와 관련해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우성만 기자

오는 9월 울산에서 개최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13차 실무위원회'와 관련 준비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시(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은 22일 울산시청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김옥채 사무총장 등 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울산시청을 예방한 자리에서 2021년 사무국 주요 활동 상황과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준비 사항 등을 공유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22일 유에코(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3차 실무위원회는 동북아시아 6개국 79개 회원단체의 국장급 간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증진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울산시는 방역·의료·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13차 실무위원회를 대면 행사로 치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경험이 있다”면서 “연이은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화 도시 울산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문의



조혜정

jhj74@iusm.co.kr

입력·편집 : 2022-02-22 20:22 조혜정 기자

울산시-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9월 개최'13차 실무위원회'준비사항 공유

윤 이상길 | 승인 2022.02.22 22:58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 일행이 22일 울산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오는 9월 울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13차 실무위원회와 관련해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장태준 기자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 연합 제13차 실무위원회'와 관련해 준비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시(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은 22일 울산시청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김옥채 사무총장 등 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울산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지난해 사무국 주요 활동 상황과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준비 사항 등을 공유했다.

김 사무총장은 "실무위원회 대면 회의 개최를 특별히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 "사무국은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3차 실무위원회는 동북아시아 6개국 79개 회원단체의 국장급 간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증진·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시는 방역·의료·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13차 실무위원회를 대면 행사로 치를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제3차 한러지방협력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경험이 있다"며 "연이은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화 도시 울산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길



울산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올, 주요업무 청취

22일 '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현안'도 논의, 실무위, 9월 20일 ~ 22일(3일간) 유에코에서 개최. 6개국 79개 회원단체 국장급 간부 참석

기사입력 2022.02.22 16:16:29 | 최종수정 2022.02.22 16:16:29 | 한호수 | hanhoso7@naver.com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13차 실무위원회'와 관련, 준비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시(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은 22일 울산시청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김옥채 사무총장 등 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울산시청을 예방한 자리에서 2021년 사무국 주요 활동 상황과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준비 사항 등을 공유했다.

김 사무총장은 “실무위원회 대면 회의 개최를 특별히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 “사무국은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 ~ 22일 유에코(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3차 실무위원회는 동북아시아 6개국 79개 회원단체의 국장급 간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지역 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증진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울산시는 방역·의료·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13차 실무위원회를 대면 행사로 치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경험이 있다”면서 “연이은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화 도시 울산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호수 (hanhoso7@naver.com)

© 2004~2020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

인쇄하기

울산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2022년 주요업무 청취

22일 '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현안'도 논의
실무위, 9월 20일 ~ 22일(3일간) 유에코에서 개최
6개국 79개 회원단체 국장급 간부 참석

김동현 기자 thekorea@daum.net

등록 2022.02.22 17:38

[더코리아-울산]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13차 실무위원회'와 관련, 준비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시(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은 2월 22일 오전 10시 40분 울산시청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김옥채 사무총장 등 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울산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2021년 사무국 주요 활동 상황과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준비 사항 등을 공유했다.

김 사무총장은 "실무위원회 대면 회의 개최를 특별히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 "사무국은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 ~ 22일 유에코(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3차 실무위원회는 동북아시아 6개국 79개 회원단체의 국장급 간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증진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울산시는 방역·의료·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13차 실무위원회를 대면 행사로 치를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경험이 있다."면서 "연이은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화 도시 울산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시-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13차 실무위 논의

등록 2022.02.22 13:18:44

기사내용 요약

실무위, 9월 20일~22일 유에코에서 개최
6개국 79개 회원단체 국장급 간부 참석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김옥채 사무총장 등 사무국 관계자들이 22일 울산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환담을 나눈 뒤 송철호 시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1.02.22. (사진=울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사무국은 22일 울산시청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김옥채 사무총장 등 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울산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2021년 사무국 주요 활동 상황과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오는 9월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준비 사항 등을 공유했다.

김 사무총장은 "실무위원회 대면 회의 개최를 특별히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 "사무국은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울산시는 9월 20일~22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제13차 실무위원회는 동북아시아 6개국 79개 회원단체의 국장급 간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지역 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증진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울산시는 방역·의료·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13차 실무위원회를 대면 행사로 치를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해 11월 제3차 한러지방협력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경험이 있다"며 "연이은 국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화 도시 울산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

울산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2022년 주요업무 논의

기사입력 2022.02.22 11:02 최종수정 2022.02.22 11:02

22일 '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현안' 논의, 실무위 9월 20일~22일 유에코에서 개최



울산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 연합 제13차 실무위원회' 관련, 준비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시(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은 22일 오전 10시 40분 울산시청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김옥채 사무총장 등 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울산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2021년 사무국 주요 활동 상황과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준비 사항 등을 공유했다.

김 사무총장은 "실무위원회 대면 회의 개최를 특별히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 "사무국은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22일 유에코(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3차 실무위원회는 동북아시아 6개국 79개 회원단체의 국장급 간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증진·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시는 방역·의료·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13차 실무위원회를 대면 행사로 치를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제3차 한러지방협력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경험이 있다"면서 "연이은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화 도시 울산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프린트하기


[로그인/회원가입](#) [회원탈퇴](#)
[홈](#) > [뉴스](#) > [사회](#)

울산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2022년 주요업무 청취

2022년 02월 22일 (화) 09:13:03

안태준 anteajun@naver.com

울산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2022년 주요업무 청취

22일 '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현안'도 논의

실무위, 9월 20일 ~ 22일(3일간) 유에코에서 개최

6개국 79개 회원단체 국장급 간부 참석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13차 실무위원회'와 관련, 준비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시(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은 2월 22일 오전 10시 40분 울산시청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김옥채 사무총장 등 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울산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2021년 사무국 주요 활동 상황과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준비 사항을 공유했다.

김 사무총장은 "실무위원회 대면 회의 개최를 특별히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 "사무국은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 ~ 22일 유에코(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3차 실무위원회는 동북아시아 6개국 79개 회원단체의 국장급 간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증진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울산시는 방역·의료·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13차 실무위원회를 대면 행사로 치를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경험이 있다."면서 "연이은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화 도시 울산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광역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2022년 주요업무 청취

윤 이민석 기자 | 승인 2022.02.22 14:45

| 22일 '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현안'도 논의



울산광역시청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광역시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13차 실무위원회'와 관련, 준비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울산시(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은 2월 22일 오전 10시 40분 울산시청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김옥채 사무총장 등 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울산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2021년 사무국 주요 활동 상황과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준비 사항 등을 공유했다.

김 사무총장은 "실무위원회 대면 회의 개최를 특별히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 "사무국은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 ~ 22일 유에코(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3차 실무위원회는 동북아시아 6개국 79개 회원단체의 국장급 간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지역 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증진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울산시는 방역·의료·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13차 실무위원회를 대면 행사로 치를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경험이 있다."면서 "연이은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화 도시 울산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자 © 경남에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석 기자

울산광역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2022년 주요업무 청취

22일 '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현안'도 논의

기사입력시간 : 2022/02/22 [11:55:00]

안상일 기자



울산광역시청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울산광역시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13차 실무위원회'와 관련, 준비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울산시(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은 2월 22일 오전 10시 40분 울산시청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김옥채 사무총장 등 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울산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2021년 사무국 주요 활동 상황과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준비 사항 등을 공유했다.

김 사무총장은 "실무위원회 대면 회의 개최를 특별히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 "사무국은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 ~ 22일 유에코(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3차 실무위원회는 동북아시아 6개국 79개 회원단체의 국장급 간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지역 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증진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울산시는 방역·의료·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13차 실무위원회를 대면 행사로 치를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경험이 있다.”면서 “연이은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화 도시 울산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광역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2022년 주요업무 청취

22일'13차 실무위원회'개최 관련 '현안'도 논의

이육환 기자 loh0127@naver.com

등록 2022.02.22 11:55:01



▲ 울산광역시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육환 기자 | 울산광역시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13차 실무위원회'와 관련, 준비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울산시(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은 2월 22일 오전 10시 40분 울산시청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김옥채 사무총장 등 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울산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2021년 사무국 주요 활동 상황과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준비 사항 등을 공유했다.

김 사무총장은 "실무위원회 대면 회의 개최를 특별히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 "사무국은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 ~ 22일 유에코(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3차 실무위원회는 동북아시아 6개국 79개 회원단체의 국장급 간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지역 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증진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울산시는 방역·의료·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13차 실무위원회를 대면 행사로 치를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경험이 있다."면서 "연이은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화 도시 울산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2022년 주요업무 청취

22일 '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현안'도 논의

기사입력시간 : 2022/02/22 [11:55:00]

홍주성 기자 kspa@kspnews.com



울산광역시청

[케이에스피뉴스=홍주성 기자 kspa@kspnews.com] 울산광역시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13차 실무위원회'와 관련, 준비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울산시(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은 2월 22일 오전 10시 40분 울산시청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김옥채 사무총장 등 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울산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2021년 사무국 주요 활동 상황과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준비 사항 등을 공유했다.

김 사무총장은 "실무위원회 대면 회의 개최를 특별히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 "사무국은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 ~ 22일 유에코(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3차 실무위원회는 동북아시아 6개국 79개 회원단체의 국장급 간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지역 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증진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울산시는 방역·의료·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13차 실무위원회를 대면 행사로 치를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경험이 있다.”면서 “연이은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화 도시 울산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광역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2022년 주요업무 청취

22일 '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현안'도 논의

기사입력시간 : 2022/02/22 [11:55:00]

이건희 기자



울산광역시청

[뉴스쉐어=이건희 기자] 울산광역시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13차 실무위원회'와 관련, 준비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울산시(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은 2월 22일 오전 10시 40분 울산시청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김옥채 사무총장 등 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울산시청을 예방한 자리에서 2021년 사무국 주요 활동 상황과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준비 사항 등을 공유했다.

김 사무총장은 "실무위원회 대면 회의 개최를 특별히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 "사무국은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 ~ 22일 유에코(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3차 실무위원회는 동북아시아 6개국 79개 회원단체의 국장급 간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증진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울산시는 방역·의료·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13차 실무위원회를 대면 행사로 치를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경험이 있다.”면서 “연이은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화 도시 울산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HOME > 지방 > 울산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22년 주 요업무 청취

✎ 박영기 기자 | ⌚ 승인 2022.02.22 13:45

6개국 79개 회원단체 국장급 간부 참석

【서울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13차 실무위원회'와 관련, 준비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시(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22일 울산시청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김옥채 사무총장 등 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울산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21년 사무국 주요 활동 상황과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준비 사항 등을 공유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22일 유에코(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3차 실무위원회는 동북아시아 6개국 79개 회원단체의 국장급 간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증진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해 11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경험이 있다. 연이은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화 도시 울산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기 기자 snakorea.rc@gmail.com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